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중국, 사드,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중국, 사드,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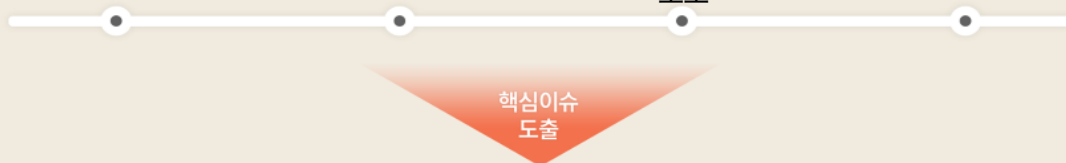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7. 13
사드 성주 배치
서명

2016. 7. 23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국 비관세장벽 우려

2016.8. 9.
중국 환구시보
사드제재 이미 시작
보도

2016. 11.18.
중국식품안전연회
개최



“중국식품안전연회 개최…한국도 참가”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중국식품안전연회 개최...한국도 참가

2016년 11월 18~20일까지 중국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제14회 중국식품안전연회 행사가 개최된다. 중국투자 상회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는 한국 측 정부 관계자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 참석하는 한국 측 관계자들은 주중한국대사관, 무역협회, KOTRA, AT유통공사 등 정부 관계자와 NH농협, 네오팜, 에코파트너스, 잇츠스킨, 세가프레도 등 중견 농·식품·바이오 회사 등이다. 참관단 규모는 약 30여명으로 중국 식품안전보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 해당 행사에서는 중국 식품 시장 진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국식품안전연회는 2002년에 중국 국무원에 의해 개최되기 시작한 행사로 2003년 첫 회를 시작으로 총 13회 개최된 바 있다. 본 행사는 중국 식품 안전 관련된 규제 및 정보 발표 부문과 관련, 중국에서는 최대 규모의 행사다.

본 행사에는 중국 안전 관련 관계자가 참석, 중국 식품안전관리 및 안전보장 시스템, 식품 안전 정보교환 플랫폼 구축, 식품과학 연구 관련 토론회 및 소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의 김길성 단장은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는 최초인 제 14회 중국식품안전행사의 한국 단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본 행사 참가를 통해 한·중 정부, 국내외 기업 간에 효과적인 협업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중국에서 위생검역 규정 강화에 의한 비관세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강화로 인한 식품 통관거부 사례도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비관세장벽을 더 높이거나 기존의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함께 나서 민관협력을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 식품안전 관련 행사 등에 민관이 적극 참여하거나 중국 규제 모니터링과 통관거부사례 분석에 있어 민관이 공동 참여, 대응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